모의고사 지문 분석

부록

2023학년도 시즌5 제2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인문 통합

직분에 대한 순자와 유수원의 관점

지문 평가

'직분 개혁'을 중심으로 (가)에서는 '순자'의 관점을, (나)에서는 '유수원'의 관점을 서술하는 통합 지문이다. 먼저 (가)에서 '순자'의 직분, 신분에 대한 이해를 '전통 유가'와 구분하여 파악하고, 그것을 (나)의 '유수원'의 이해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word

(가) 인문 – 동양 철학 – 순자
공자, 명분, 직분, 순자, 직분 개혁, 욕구, 인위, 분업, 공평
(나) 인문 – 동양 철학 – 실학
국허민빈, 유수원, 문벌, 사민미분, 사민일치, 직분주의

(가) 문단 1 공자와 순자의 관점

1) 전통 유가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정해진 자리인 정위와 그 자리들 사이의 귀천인 위계가 있어서 누구든 타고난 신분을 지닌다. 아울러 공자에 따르면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듯이 모든 사회적 지위의 이름인 '명(名)'에는 그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인 '분(分)'이 따른다. 사회 안정은 각자가 **명분(名分)**을 따라 신분에 부합하는 타고난 역할인 **직분(職分)**을 수행할 때에 실현되는 것이다.

➡ '전통 유가'에 따르면 신분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공자'에 따르면 명분에 따라[→ 타고난 사회적 지위, '신분'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 역할인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 요약하면 타고난 신분에 따라, 마찬가지로 타고난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순자 역시 사회 안정을 위해 명분을 바르게 하는 **직분 개혁**을 강조하였다. 다만 이때의 직분은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의 직업이자 역할로, 이에 종사하는 백성인 사민(四民)이 각자의 직분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맥락 짚기 '순자'는 전통 유가 및 공자와 대비되는 관점이다. 어느 지점에서 두 관점이 구분되는지를 의식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 '순자' 또한 공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안정을 위해 명분에 따른 직분을 강조했다. 다만 순자는 공자와 달리, 인간이 직분을 타고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가) 문단 2 인위에 따른 욕구의 적합한 충족

1)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본성이다. 모든 욕구는 이기적인 생존 욕구에 기초한 것으로 선악 판단의 대상일 수 없다.

➡ 인간의 욕구에 대한 순자의 관점이다. '이기적'이라고 하면 악한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순자에 따르면 욕구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2)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사회 속에서 점차 확대되기 쉽다. 순자는 그런 이유로 인해 욕구의 충족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고 여겼고, 그 사회적 혼란이야말로 악(惡)이라고 보았다.

➡ 순자에 따르면 욕구 자체는 악하지 않다. 욕구 충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악'이다. 따라서 사회 안정을 달성하려면 욕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선한 방향으로 충족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3) 아울러 인간의 능동적인 의식 작용인 **인위**를 통해 욕구를 적합하게 충족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는 선(善)이라고 보았다. 순자는 무한히 확대되는 욕구에 분별없이 따르는 종욕(縱欲)뿐만 아니라 욕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인욕(忍欲)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 사회적 혼란이 '악'이라면 욕구를 적합하게 충족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므로 '선'이다[→ 순자도 사회 안정을 목표로 한다.].

➡ 인간의 욕구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으므로, 욕구의 억제도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욕구를 '적합하게'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 무분별한 욕구 확대 ⇨ 사회 혼란 ⇨ '악'
- 인위 ⇨ 적합한 욕구 충족 ⇨ 사회 안정 ⇨ '선'

(가) 문단 3 분업과 공평에 따른 선의 실현

1) 전국 시대의 혼란을 겪은 순자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위를 통한 사회적 분별인 **분업**이라고 보았다.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역할에 따라 욕구들이 적합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 '인위'를 통해 욕구가 적합하게 충족되면 이는 사회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분업'이다. 분업은 혼란을 막기 위해, 즉 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분별이다.

주목 이때 '역할에 따라' 욕구들을 충족한다는 표현에 주목하자. 즉 순자는 각자의 역할인 직분을 강조하면서[문단1–2)], 직분별로 각기 다르게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2) 그에 따르면 분별이 정당하여 욕구의 충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인데, 이는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 합당한 직분을 맡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 사민의 직분에 기초하여 합당하게 일이 나뉘고 잘 수행될 때에 예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 '분업'의 실현은 '공평'을 의미한다. 이는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 각자가 합당한 직분을 맡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직분 또한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한 공자의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다[문단1–1)].

(가) 문단 4 직분 개혁과 신분제

1) 다만 순자는 직분만을 강조하기보다 신분제 역시 사회 혼란을 막을 통제 수단으로써 그 존재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직분뿐 아니라 신분의 차이로 몫의 크기를 달리하는 것이나 위계에 의한 통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순자는 예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신분을 낮추고 예의를 실천하면 높인다고 하여, 신분이 세습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 순자는 직분과 마찬가지로 신분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직분이 '덕과 능력'에 따라 맡는 것이라면 신분은 '예의의 실천'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2) 신분이든 직분이든 어느 정도 위계가 있으므로 덕과 능력을 갖춘 이에게 차등을 두어 얻게 해야 조화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 전통 유가의 관점에서는 타고난 신분과 직분에 의해 위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면, 순자는 타고나지 않은 신분과 직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위계를 용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신분이나 직분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위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전통 유가, 공자	순자
신분과 직분에 따른 위계 인정	
신분과 직분은 타고나는 것	신분과 직분은 타고나지 않는 것

(나) 문단 ① 유수원의 관점

조선 후기에 나라가 허약하고 백성이 가난한 **국허민빈(國虛民貧)**의 현실을 두고 여러 학자들은 양대 전란이나 천재지변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영조 대에 지방관으로 근무하던 **유수원**은 자신의 사회 개혁안을 기술한 『우서』를 통해 그와는 전혀 다른 원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세습되는 지위인 **문벌(門閥)**과 그에 따라 사민이 제대로 분화되지 않은 **'사민미분'**이다.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은 (나)를 읽는 시점에서 (가)를 온전히 이해했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가)를 토대로 (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허민빈'은 (가)에서 언급된 '사회 혼란'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유수원'은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문벌'의 세습에 의한 '사민미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문벌이 세습되지 않도록 하여 '사민이 제대로 분화되도록 하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 유수원이 제시할 사회 개혁안이 (가)의 순자의 '직분 개혁'과 어느 지점에서 공통되고 차이가 있을지도 잘 파악하자.

(나) 문단 ② 문벌과 사민미분

1) 조선 후기에 양인은 천민과 달리 법률상 자유민임에도 출세가 극히 힘들었으며, 군역의 부담도 홀로 지고 있어서 재력이 있는 양인들은 누구든 양반 자리를 사려 하였다.

➡ 당시의 문제 상황과 원인에 대해 상술하는 대목이다. 맥락을 고려했을 때 양반은 '세습되는 지위'일 테고, 그것을 사고팔 수 있다면 점점 양반의 수는 늘어나는 대신 양인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각자의 '명분'에 따라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순자의 사상에 비교적 가까운 생각을 지닌 유수원은, 이러한 현실에 문벌에 의한 인재 등용만 강조되는 풍토가 더해져 양반이 느는 대신 농, 공, 상은 줄어드는 것이 나라의 부가 쌓이지 못하는 원인이라 보았다.

맥락 짚기 유수원이 (가)의 순자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목이다. '명분'이란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합당한 역할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었다[(가)의 문단1-1)].

➡ '문벌에 의한 인재 등용'이란 세습되는 지위에 따라 인재 등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부모가 양반인 경우에는 그 자식도 양반이라서 출세할 수 있었지만, 부모가 양인이나 천민인 경우에는 그 자식도 양인, 천민이라서[→ 그 지위가 세습되어서] 출세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 그로 인해 모두가 양반 자리를 사려고 해서 나머지 농, 공, 상의 수가 줄어들고 말았다.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백성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3) 그는 문벌에 의한 권력 독점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은 근로(勤勞)의 상실이 더 큰 문제라고 보았다. 문벌을 숭상하면서 농, 공, 상의 일을 부끄럽게 여겨 사민 모두가 직분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유수원에 따르면 문벌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 공, 상의 수가 줄어들고 그나마 남아 있는 농, 공, 상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 이렇게 농, 공, 상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민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사민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벌의 세습 ⇨ 사↑, 농·공·상↓ ⇨ 근로의 상실
⇨ 사민미분 ⇨ 국허민빈

(나) 문단 ③ 직분 개혁을 통한 사민일치

1) 유수원이 제안한, 국허민빈의 극복 방안은 신분제를 직분제로 개편하는 직분 개혁에 있다. 그는 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였는데, 『우서』에서 서론 격인 권1의 바로 다음에 신분제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뒤에도 여러 권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수원이 제안한 직분 개혁의 내용은 신분제를 직분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로써 문벌의 세습을 없애 사민의 분화[→ 사민미분 ×]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주목 이는 순자의 개혁안이 신분, 직분에 대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과 구분된다. 순자는 신분, 직분의 세습을 철폐하려 했다면, 유수원은 아예 신분제 자체를 철폐하려 한 것이다.

2) 그는 『우서』를 통해 중국 삼대(三代)의 성왕들이 천하를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자신의 직업에 힘쓰고 관리가 각자의 직책[→ 직분]에 충실하도록 한 데에 있다고 보았다.

➡ 유수원이 직분 개혁을 주장한 근거다. 태평성대의 시기[→ 사회 안정]를 살펴보니, 태평성대의 이유는 결국 각자가 직분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3) 그에 따라 신분제를 직분제로 개편하여 **'사민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민일치는 신분 대신에 학식과 재능에 따라 각자가 직분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사민이 평등해지는 것을 말한다.

➡ '사민일치'는 유수원이 제시한 직분 개혁의 핵심 개념으로 '사민미분'과 대조해 이해하면 된다. 즉 사민이 제대로 분화되는 상황이다.

➡ 유수원의 직분 개혁을 순자의 직분 개혁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신분제와 직분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를 아예 직분제로 대체한다는 것'에 있다.

(나) 문단 ④ 유수원의 직분주의

1) 물론 그가 사, 농, 공, 상을 동일한 가치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국가를 다스리고 인륜을 밝히는 '사'가 보다 가치 있다고 보았고, 농이 그다음, 공과 상을 그 아래로 보면서 몫의 차등도 인정하였다. 이렇듯 그는 직분의 위계를 인정하긴 했으나 ……

➡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니 집중하자. 유수원은 사민의 평등을 주장했으나[→ 신분제 ×], 직분에 따른 위계는 인정했다.

➡ 즉 직분제를 이유로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사 > 농 > 공 · 상'이라는 위계를 동시에 수용한 것이다. 얼핏 모순되는 내용인 만큼 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2) …… 이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다만 이는 통제를 위한 위계가 아니었다. 이는 순자의 관점과는 대조되는 지점이므로 주목하자. 순자는 직분에 위계가 존재하며 위계에 따른 통제도 필요하다고 보았다[(가)의 문단4-1)]. 반면 유수원에게 직분의 위계는 중요성의 차이 정도다. 인간이 먹어야 살 수 있으므로 공보다는 농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인식과 같은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 또한 누군가 '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면 농, 공, 상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성왕들이 제정한 신분제의 본의라고 생각하였다. 세습되는 신분주의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직분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유수원이 주장한 '직분주의'는 신분의 세습에 반대하며, 능력에 따라 직분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대목은 신분 세습에 반대한 순자의 관점과 유사하다[(가)의 문단4-1)].

➡ 순자와 유수원의 관점을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하며 마무리하자.

	순자	유수원
직분 개혁의 방향	신분제 개혁[→ 세습 ×]	신분제 → 직분제
	직분제 개혁[→ 세습 ×]	
직분의 결정	덕과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것	학식과 재능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직분의 위계	인정	인정
위계를 통한 통제	인정	반대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세상에서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 오직 문벌에 의해서만 차별되어 있으니, 안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밖으로는 수치와 분노가 나타나며,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 아울러 양반에게서는 미처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인만이 납세하려 하겠는가. …

➡ 세습되는 사회적 지위인 '문벌에 의한 차별'과 '근로 상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유수원은 그로 인한 '사민미분'을 사회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았다[(나)의 문단1, 2].

2) 양반이 농, 공, 상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는데, 사, 농, 공, 상은 국가에서 나누어 주거나 권장 내지 저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의 마음에 따라 하고, 하지 않을 뿐이어야 한다.

➡ 신분 대신에 '학식과 재능'에 따라 각자가 직분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나)의 문단3-3)]. 유수원은 이를 통해 사민이 평등해지는 사민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3) 공과 상은 농보다 낮은 말업(末業)인 위계가 있겠으나 원래부터 바르지 않고 비루한 일은 아니다. …

➡ 다만 직분 간에 위계가 성립한다는 진술이다. 유수원은 이처럼 직분의 위계를 인정하긴 했으나, 그것은 통제를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이 순자와의 차이점이었다[(나)의 문단4-2)].

∴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유수원이 사, 농, 공, 상의 위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4) 총명함을 자질로 지닌 사람이 진학해서 사(士)가 되어 부모를 빛내는데, 농부나 공인, 상인의 아들도 모두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처럼 떳떳한 직업을 지니고 실사에 힘쓰는 것이 삼대 때 백성을 이끌던 법도였다.

➡ 총명함을 자질로 지닌 사람이 '사'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직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세습에 대한 부정이다.]. 이에 따라 모두가 떳떳해지는 것이 곧 사민일치의 경지인데[(나)의 문단3-3)], 유수원은 중국 삼대의 성왕 시절을 이러한 직분 개혁의 모범으로 삼았다.

[10~13] 사회

합병 및 분할 상황에서의 채권자 이의 제도

지문 평가

비교적 판단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자 이의 제도'의 목적이 채권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정보들을 분류하기가 상당히 명확해진다. 어느 경우에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해당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 주요한 독해 지점이다.

Keyword

사회 – 법학 – 채권자 이의 제도

합병, 분할, 주주, 채권자, 채권자 이의 제도, 최고, 합병 무효의 소, 신설 회사, 분할 회사, 개별 책임, 연대 책임,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비자발적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채권자

문단 1 채권자 이의 제도의 목적

1) 두 회사를 합쳐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합병**이나 회사의 일부를 쪼개어 둘 이상의 회사를 만드는 **분할**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 '합병'과 '분할' 두 개념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2) 회사의 **주주**는 그러한 목적에 동의하면서 이에 찬성하기 쉬우나, 회사에 받을 자금이 있는 **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기 쉽다.

➡ 합병, 분할의 상황에서 주주와 채권자 입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주와 달리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을 권리[→ 채권]를 지니고 있는데, 합병 및 분할로 회사의 재무 구조가 달라지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이와 같은 주주와 채권자 간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채권자 이의 제도**를 두고 있다.

➡ 따라서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회사로부터 약속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 이의 제도'이다.

맥락 잡기 '채권자 이의 제도'라는 지문의 중심 화제가 제시되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합병 상황과 분할 상황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단 2 합병 상황에서의 채권자 보호

1)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기존 채무는 법률에 따라 합병된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특정 채권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재무 구조의 우량한 정도가 서로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하면, 합병 전에 더 우량했던 회사의 채권 가치는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의 증가로 하락할 수 있다.

➡ 먼저 '합병'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기존 회사들이 지닌 채무는 새로 합병된 회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 그런데 합병에 의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불량해지면 해당 채권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그래서 상법은 합병 당사자들이 합병에 대한 주주 총회의 승인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들에게 합병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제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 후에는 회사가 모든 채권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독촉하는 통지인 **최고(催告)**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의가 제출되면 그 채권자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대해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혹은 채무에 상당하는 재산을 신탁 회사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 '채권자 이의 제도'가 이뤄지는 과정을 상술하고 있다. 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신의 채권을 확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합병에 대한 주주 총회의 승인
⇩
2주 내 이의 제출 공고 + 최고
⇩
공고 후 30일 이상의 이의 제출 기간
⇩
기간 내 이의 제출 시 채권자 보호 조치

➡ 모든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최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은 합병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가령 상대적으로 합병에 의해 재무 구조가 우량해지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채권자는 본래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거치지 않으면 이는 해당 소에서 합병 무효 사유로 인정된다.

➡ 만약에 합병을 의결한 두 회사가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거치지 않는다면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됐을 때 합병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채권자 이의 절차를 어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문단 3 분할 상황에서의 채권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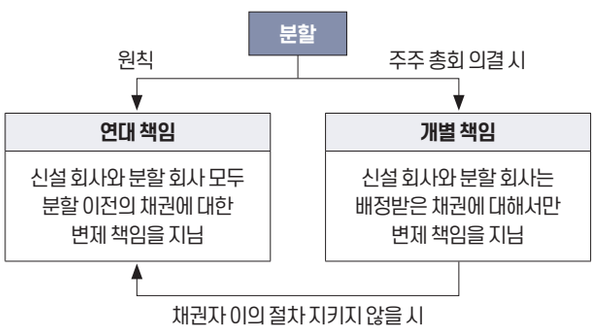
1) 회사의 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신설 회사**와 기존의 회사인 **분할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 '분할' 상황에 대한 원칙이 서술되고 있다[→ 이는 '예외'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채권에 대해서는 '신설 회사'와 '분할 회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 채권자는 변제를 신설 회사에 요구할 수도, 분할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다만 각 회사가 채무를 배정받아 **개별 책임**을 지기로 주주 총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합병 시와 동일하게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밟아야 그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여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 분할의 상황에 대한 '예외'가 서술되고 있다. '개별 책임'의 상황[→ 두 회사 중 하나에서만 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주목 ▲ 반면 '연대 책임'의 상황에서는 채권자 이의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다. 한 회사가 두 회사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분할된 두 회사가 모두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할되기 전과 사실상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 만약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거치지 않는다면[→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의 제출 기간이 30일보다 짧거나,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상황] '연대 책임'의 상황으로 간주된다.

3) 또한 분할 방식이나 사업과 채권의 배정 양상에 따라 채권자의 피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 지금까지는 분할 상황에서 '책임 방식'에 따라 채권자의 피해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분할 방식'과 '사업과 채권의 배정 양상'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피해 가능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

4) 신설 회사의 주식을 분할 회사의 주주에게 보유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인적 분할**을 취할 경우에 신설 회사에 우량 사업이 배정되고 분할 회사에 위험성이 큰 사업과 채무 대부분이 배정되면[→ 결과적으로 재무 구조가 불량해지면], 주주의 재산상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전가될 소지가 크다.

맥락 짚기 ▼ 분할 방식에 대한 설명과 사업과 채권의 배정 양상에 대한 설명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자.

➡ '인적 분할'이 이루어지면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을 배정받은 회사의 재무 구조가 불량해질 수도[→ 위험성이 큰 사업을 배정받거나, 자신의 채권을 제외하고도 변제해야 하는 채권들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때 인적 분할에 의해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은 결국 '개별 책임'의 상황에 한정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연대 책임'의 상황[→ 신설 회사, 분할 회사가 분할되기 전의 모든 채권을 함께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한 회사의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바가 없다. 나머지 회사에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5) 분할 회사가 신설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는 **물적 분할**을 취할 경우에는, 분할 회사가 신설 회사를 지배하고 신설 회사로부터 배당도 받으므로 분할 회사에 대한 채권도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만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채권의 위험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주목 ▲ 분할의 상황에서는 회사들이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거쳤다는 전제하에] '개별 책임'을 지면서 '인적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채권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연대 책임	채권의 위험 변화 ×	
개별 책임	채권의 위험 변화 ○	채권의 위험 변화 ×

문단 4 채권자 이의 제도의 보완 필요성

1) 그런데 매출의 대부분을 특정 회사에 의존하는 하청 업체처럼 협상력이 낮은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맥락 짚기 ▼ 초점을 전환하여 채권자 이의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 상법에서 합병 및 분할의 상황에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이의 제도를 통해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협상력이 낮은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2) 또한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소비자처럼 계약이 아닌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채권을 갖는 **비자발적 채권자**는 피해 시점보다 손해 배상 청구가 늦게 이루어져서 이의 제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들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편된 후에도[→ 채권자 이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의 절차를 거치고 분할,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도] 담보 제공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 또한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 시점에 바로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의 절차를 원천적으로 거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자 이의 절차의 기간이 끝난다면 그 이후에 채권자가 되더라도 합병, 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3) 한편 채권자 이의 제도는 합병이나 분할로 오히려 보유 채권의 가치가 높아진 채권자인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보호받는 채권자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다시 말하지만 합병 및 분할이 이루어질 때 기존 채권의 가치가 항상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채권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을 가리켜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라 한다.

➡ 채권자 보호는 어디까지나 '받을 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위한 것인 만큼[문단1-2)]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4)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거나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합병이나 분할로 보유 채권의 가치가 낮아져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채권자'**가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고 변제 순위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 그럼에도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이러한 채권자들에게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 필요성이 높은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회사 갑은 우량 자산과 우량 사업만을 분할하여 신설 회사인 회사 을을 설립하였다. 이때 기존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중 채권 A는 갑에 배정하고 채권 B는 을에 배정하여 개별 책임을 지기로 주주 총회에서 의결되었다.

➡ '분할'의 상황이다. 여기서 회사 갑은 '분할 회사'에 대응되고 회사 을은 '신설 회사'에 대응된다. 핵심은 분할에 의해 신설 회사의 재무 구조가 우량해졌다는 데에 있다[→ 반대로 분할 회사의 재무 구조는 불량해졌다.].

➡ 또한 '개별 책임'을 지기로 의결된 상황이다. 만약에 '인적 분할 + 개별 책임'의 상황이라면 분할 회사에 배정된 채권 A의 가치는 낮아질 수 있고, 신설 회사에 배정된 채권 B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문단3-4)]. 물론 '물적 분할 + 개별 책임'의 상황이라면 채권 A와 B의 가치 모두 변할 이유가 없다[문단3-5)].

2) 갑은 이의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공고했지만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지는 않아서 채권자 이의 절차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기간 내에 제출된 이의는 없었다.

➡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책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 것이다. 만약에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거치지 않는다면 다시 원칙대로 '연대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보기〉 상황에서는 그 절차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의 제기가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이는 '연대 책임'으로 간주될 것이다. 즉 채권 A와 B 모두 가치가 변할 이유가 없다.

∴ 어떤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든 결과적으로 '연대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이유는 없다. 따라서 ③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

3) 몇 년 후에 을은 자신보다 재무 구조가 더 우량한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회사 병이 설립되었다. 합병 과정에서 합병 당사자인 두 회사는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거쳤다.

➡ 이번에는 '합병'의 상황이다. 채권자 이의 절차를 온전히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지점은 없다.

➡ 다만 회사 을에 채권 B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합병에 의해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우량해지기 때문이다.]. 즉 해당 채권자는 '보호 필요성이 낮은 채권자'로 분류될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기술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

지문 평가

다양한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설명하는 지문이다. 각 기술의 작동 원리 및 과정을 이해하되, 이전 기술의 한계를 다음 단계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자 했는지를 함께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word

기술 – 정보 기술 – 음성 합성

음성 합성, 음성 파형, 음성 스펙트럼, 푸리에 변환, 음성 스펙트로그램, 포먼트, 포먼트 주파수, 클라트 합성법, 포먼트 재현, 연결 합성법,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 음성 합성 장치

문단 1 음성 합성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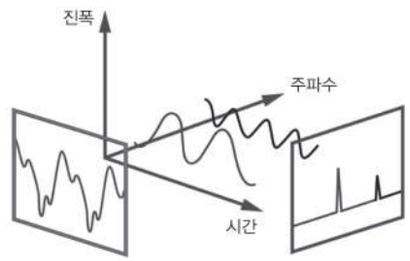
음성 합성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음파로 변환하여 말소리를 제공하는 기술로, 텍스트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나 각종 자동 응답, 오디오 북 등 생활 곳곳에서 활용된다. 이 기술로 현실의 사람 목소리와 흡사한, 품질이 우수한 소리를 만들려면 실제 음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참고해야 한다.

➡ 텍스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음파로 변환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음성 합성 기술은 '사람 목소리와 흡사한' 소리를 목표로 삼으므로, 각종 기술적 원리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음을 염두에 두며 독해하자.

문단 2 음성 스펙트로그램

1) 우리는 음성을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두 측면에서 좌표 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다. 시간 영역의 표현은 소리의 크기에 해당하는 세로축의 진폭이 가로축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음성 파형**으로 이루어진다. 주파수 영역의 표현은 음의 높낮이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로축에 두고 각 주파수 성분을 세로축의 진폭으로 나타낸 **음성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진다. 두 영역의 표현은 **푸리에 변환**이라는 연산을 통해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 똑같은 음성이더라도 '시간 영역의 표현'으로는 음성 파형이 되고, '주파수 영역의 표현'으로는 음성 스펙트럼이 된다. 핵심은 이 둘이 '푸리에 변환'에 의하여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간 영역의 표현 ⇦ 푸리에 변환 ⇨ 주파수 영역의 표현

2) 주파수 영역에는 목소리나 발음의 특징 등이 담겨 있어서 음성 합성 시에 보다 많이 참고해야 하지만, 결국 음성을 합성하려면 주파수의 특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 '품질이 우수한 소리'를 만들려면 사람의 목소리의 특성이 잘 반영되는 [→ 음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것이 주파수 영역이므로] '음성 스펙트럼'을 참고해야 하지만, 그것을 실제 말소리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 영역에 따른 '음성 파형'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3) 그래서 음성 파형을 수십 밀리초 정도의 짧은 구간으로 쪼갠 후 각 구간별로 음성 스펙트럼을 만든 후 이들을 단순히 시간순으로 이어 붙인 **음성 스펙트로그램**이 음성 합성을 위한 분석 과정에 사용된다.

➡ '음성 스펙트로그램'은 음성 스펙트럼을 시간 순서대로 덧붙인 것이다. 즉 음성 스펙트럼들로 구성되는 만큼 목소리나 발음의 특징이 반영되면서도,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는 만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영된다. 요컨대 음성 스펙트로그램은 '주파수 영역의 표현 + 시간 영역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성 파형 = 구간 1 + 구간 2 + … + 구간 n

↓

구간 1 —— 푸리에 변환 ⟶ 음성 스펙트럼 1
구간 2 —— 푸리에 변환 ⟶ 음성 스펙트럼 2
⋮
구간 n —— 푸리에 변환 ⟶ 음성 스펙트럼 n

↓

음성 스펙트럼 1 + 음성 스펙트럼 2 + … + 음성 스펙트럼 n
= 음성 스펙트로그램

➡ 왜 '하나의 음성 파형'을 그대로 음성 스펙트럼으로 변환하지 않는지 추론해 보자. 푸리에 변환을 거치면 음성 파형을 음성 스펙트럼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시간 영역의 표현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음성 파형'을 여러 구간으로 잘게 나누면[→ 사실상 '한순간'에 가까워서 시간 영역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잘게 나누면] 그것을 '음성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더라도 시간 영역의 표현을 상실하지 않는다. 오히려 음성 스펙트럼으로 그 구간들을 다시 이어 붙인다면, 비교적 시간 영역의 표현에 가깝게 시간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문단 3 클라트 합성법

1) 음성 스펙트럼에서는 상대적으로 진폭이 큰 주파수 성분들이 존재함에 따라 뾰족한 봉우리와 같은 부분들이 여럿 관찰된다. 이 봉우리들을 **포먼트**라 하는데, 발음에 따라 **포먼트 주파수**들이 달리 나타나지만, 동일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하다.

➡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구성하는 음성 스펙트럼을 통해서는 '포먼트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포먼트 주파수들은 음소[→ 자음과 모음]에 따라 달라진다.

➡ 즉 우리는 해당 음성 스펙트럼이 어떤 음소를 발음한 것인지를 '포먼트 주파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주파수 영역의 표현이 발음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런 뜻이었다[문단2-2)].

2) 초창기 음성 합성 기술인 **클라트 합성법**은 이에 착안하여 각 음소별로 포먼트 주파수들을 측정하여 표로 정리해 두고 활용한다. 입력된 텍스트를 자음과 모음의 음소 단위로 나누고, 표에 따라 음소별 음성 스펙트럼을 생성하는 **포먼트 재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어 붙여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만든 후 음성 파형으로 변환하여 소리로 내보낸다.

맥락 짚기 '초창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기술에는 어떤 한계가 존재할 테고[→ 아마 '품질이 우수한 소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 가까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제안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클라트 합성법'의 핵심은 사전에 특정 음소에 따라 나타나는 포먼트 주파수들을 표의 형태로 정리해 둔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음성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일 것이다.

➡ 가령 '사랑해'라는 텍스트가 입력되었을 때 우리는 표를 참고하여 'ㅅ, ㅏ, ㄹ, ㅏ, ㅇ, ㅎ, ㅐ' 각각에 해당하는 음성 스펙트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이어 붙여서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문단2-3)].

➡ 마지막으로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실제의 말소리로 출력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음성 파형으로 변환해야 한다. 클라트 합성법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음소 단위로 텍스트 해체
> ⇩
> 각 음소에 대응하는 음성 스펙트럼 생성
> ⇩
> 순서대로 이어 붙여 음성 스펙트로그램 생성
> ⇩
> 푸리에 변환을 통해 음성 파형으로 변환

3) 그런데 포먼트 재현만으로는 자연스러운 발음을 만들기 힘들어서, 그 결과물은 발음이 거칠고 기계음처럼 들리는 등 품질이 낮다.

➡ 예상한 대로 '클라트 합성법'으로는 품질이 우수한 소리를 만들 수가 없다. 이는 동일한 음소의 경우에도 발음에 따라 포먼트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1)의 내용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문단 4 연결 합성법과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

1) 클라트 합성법 이후에 개발된 **연결 합성법**은 성우가 다수의 발음 조각들을 녹음해 둔 발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이때의 발음 조각은 음소 단위부터, 단어, 구, 문장 등 다양한 길이를 지닌다. 이 방법은 입력된 텍스트에 대응하는 발음 조각들을 찾아 연결하는 것인데, ……

맥락 짚기 ▼ 연결 합성법이 클라트 합성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 파악해 보자.

➡ '연결 합성법'은 음성 스펙트럼을 이어 붙여서 만든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다. 발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음성 파형'들을 이어 붙여서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가령 '사랑해'가 입력되면 발음 조각 중에 '사랑'이 있고 '해'가 있으면 둘을 이어 붙이는 것이다.

2) …… 실제의 목소리여서 자연스러우나 연결 작업이 어렵고 길게 녹음되지 않은 부분의 접합부에서 거슬리는 소리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 이는 실제의 목소리를 이어 붙였다는 점에서 클라트 합성법에 비해서는 자연스럽지만[→ 클라트 합성법은 실제의 목소리를 이어 붙이지 않고 음소별 음성 스펙트럼을 이용한다.]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 특히 '접합부에서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3) 이를 극복한 방법으로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이 있다. 이는 성우의 음성 스펙트럼에서 발견되는 발음 특징 등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 텍스트와 그에 대해 성우가 실제 발음한 것의 음성 파형의 다수 쌍들을 학습 데이터 삼아, 학습을 거쳐 **'음성 합성 장치'**를 만드는 모델이다.

맥락 짚기 ▼ 그렇다면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이 '가장' 품질이 우수한 음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일 것이다. 앞서 등장한 기술들과 구분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 클라트 합성법에서는 〈음소, 포먼트 주파수〉의 쌍을 표로 정리하여 음성 스펙트럼을 이어 붙였다면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에서는 〈텍스트, 음성 파형〉의 쌍을 학습한다. 이는 입력된 텍스트에 대응하는 '음성 파형'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발음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연결 합성법에서는 실제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발음을 만들 수 있음'에도 연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되지 않았음을 의식하고 넘어가자.

4) 다른 방법들이 음성학이나 음운론을 활용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무런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텍스트와 음성 파형 간에 숨겨져 있던 비선형적 관계들이 적용되는 결과를 얻는다.

➡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의 장점이다. 별도의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텍스트와 음성 파형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들을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5) 수많은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완료하여 얻은 '음성 합성 장치'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음성 파형의 생성을 거쳐 자연스러운 음성이 만들어진다.

➡ 구체적으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과정 없이, 결과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만이 주어졌다[문단1].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보기〉를 통해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의식해 두자.

<보기> 분석

<보기>문단

1)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장치, 보코더의 네 요소로 구성된다. **인코더**는 입력된 텍스트에서 특징 정보들을 추출하며 **디코더**는 그 특징 정보들로부터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만든다.

➡ 문단4에서 설명한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의 학습 과정에 대한 상술이 주어지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먼저 '인코더'는 입력된 텍스트로부터 특징 정보들을 추출하고, 그다음으로 '디코더'가 인코더에 의해 추출된 특징 정보들을 토대로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만든다.

참고 ▼ 인코더가 추출하는 특징 정보는 음소 단위일 수도 있고, 형태소 단위일 수도 있고, 음절 단위일 수도 있다. 입력된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2) 이때 입력된 텍스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자열이 무엇인지 디코더에 알려 주면 학습 성능이 향상되는데, **어텐션** 장치가 그것을 찾아 주는 역할을 한다.

➡ 디코더가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는 '어텐션' 장치가 개입한다. 보다 자연스러운 말소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참고 ▼ 어텐션은 입력된 텍스트를 고려해서 특정 문자열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해당 문자열에 대응되는 적절한 '음성 스펙트럼'을 찾도록 돕는다.

3) **보코더**는 디코더에서 입력된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기반으로 음성을 생성하여 출력한다.

➡ '보코더'는 실제로 음성을 출력하는 과정이다.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음성 파형으로 변환하려면 그것을 구성하는 '음성 스펙트럼'을 '음성 파형'으로 변환해야만 한다.

∴ 음성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음성 파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성 스펙트로그램을 이루는 다수의 음성 스펙트럼을 각각 음성 파형으로 변환해야만 한다. 즉 '푸리에 변환'을 반복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⑤번 선지가 적절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 이 모델에서 학습을 시작할 때에는 각 요소들이 지니고 있던 여러 변수들이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다. 첫 번째 학습용 텍스트가 네 요소를 모두 통과하면 성능이 나쁜 첫 번째 음성 파형이 만들어진다.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은 이를 실제 성우가 녹음한 음성의 음성 파형과 비교하여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각 요소들의 변숫값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디프 러닝 음성 합성 모델은 〈텍스트, 음성 파형〉의 쌍을 토대로 학습을 수행한다[문단4-3]. 학습하려는 〈텍스트〉를 입력하여 인코더, 어텐션 장치, 디코더, 보코더를 거쳐 음성 파형을 얻었다고 하자.

➡ 그렇다면 그것을 학습하려는 〈음성 파형〉과 비교하고, 그것과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변숫값들을 조정한다. 내가 구한 답을 실제 답과 비교해서 '학습'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5)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여 학습이 모두 완료되면, 더 이상 변숫값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네 요소로 구성된 음성 합성 장치가 만들어진다.

➡ 충분한 학습을 거쳐서 만든 '음성 합성 장치'는 품질이 우수한 소리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문단1].

[22~27] 현대시

(가) 「삽사리」

– 정지용 –

작품 평가

「삽사리」는 화자 자신에 대한 진술은 거의 없고 '그대의 밤'을 지킨 '삽사리'에 대한 진술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그대를 향한 화자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절제의 미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그날 밤 그대의 밤을 지키던 삽사리 괴임 직도[→사랑받을 만도] 하이.

➡ 화자의 사랑인지 그대의 사랑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어느 쪽으로 해석하건 '삽사리'가 화자[혹은 그대 혹은 모두]의 사랑을 받아도 될 만큼 충직하게 '그대의 밤'을 지켰기에 삽사리가 사랑받을 만도 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짙은 울 가시 사립(=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 굳이 닫히었거니 덧문(= 문짝 바깥쪽에 덧다는 문)이요 미닫이요 안의 또 촛불 고요히 돌아 환히 새우었거니 눈이 치로 쌓인 고샅길(=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인기척도 아니 하였거니 무엇에 후젓하던 맘 못 놓이길래 그리 짖었더라니.

➡ 두꺼운 울타리가 있고 가시나무로 엮어 만든 사립문이 굳게 닫혀 있고, 덧문과 미닫이문에다가 방 안에는 촛불이 환하게 밝혀 주고 있다. '삽사리'가 긴장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이 강조되고 있다.

➡ 무슨 이유에선지 화자는 그대의 집 근처까지 가서도 그대를 부르지 않고 기척도 없이 눈 쌓인 골목길에 서 있다. 소리조차 내지 않았으니 '삽사리'가 경계할 이유는 역시 없다. 하지만 '삽사리'는 무엇 때문인지 마음을 못 놓고 짖어 댔던 것이다.

얼음 아래 잔돌 사이 뚫노라 죄죄대던 개울물 소리 기어들세라 큰 봉을 돌아 둥그레 둥긋이 넘쳐 오던 이윽달[→보름달 가까운 달]도 선뜻 나려설세라 이저리 서대던[→왔다 갔다 하며 나대던] 것이러냐.

➡ 얼음 아래 잔돌 사이를 뚫고 가느라 재잘거리던 개울물 소리가 새어 들까 봐, 혹은 큰 봉우리를 돌아 둥글게 솟아오르던 이윽달이 선뜻 내려설까 봐 그렇게 이리저리 서성였던 것이냐고 말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도 경계심을 풀지 않는 '삽사리'의 모습을 보며, 화자는 '삽사리'가 개울물 소리나 달빛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삽사리'가 충직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뜻이다.

삽사리 그리 굴음[→짖어 대고 나댐] 직도 하이. 내가 그댈새레[→그대는커녕] 그대 것엔들 닿을 법도 하리. 삽사리 짖다 이내 허울한 나룻(= 텁수룩한 수염) 도사리고[→포개어 감고] 그대 벗으신 고운 신 이마 위하며 자더니.

➡ 집 지키는 개인 '삽사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것 아닌 것들에도 경계심을 품었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한다.

➡ '삽사리'는 짖다 지쳐 곧 수염을 포개고 그대가 벗어 놓은 고운 신에 이마를 얹고 잠을 자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그대는커녕 그대의 물건에도 다가가기 힘든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삽사리'만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화자에게서 '그대'에게 닿고 싶은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삽사리'는 그대를 지켜 주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투사한 존재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대에게 다가가려는 화자를 방해하는 존재로도 볼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그대를 충실히 지키다 지쳐 그대의 신발 위에 잠드는 '삽사리'의 모습은, 그대를 향한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8~30] 고전시가

(가) 「만분가」

– 조위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작가가 연산군 재위 중 사화(士禍)에 연루되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느낀 원통함을 하소연한 것이다. 천상의 신선 세계에서 지상으로 추방된 화자가 옥황상제에게 자신의 한스러운 마음을 알리려고 하는 말을 통해,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하는 작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하늘에 있는 궁전] 십이루(十二樓, 신선이 산다는 열두 채의 누각) 어디매오

→ 천상백옥경 십이루 어디인가.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 하늘의 신선이 사는 궁궐)이 가렸으니

→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구만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 하늘 문[까지의] 구만리를 꿈이라도 갈지 말지

➡ 화자는 천상백옥경, 십이루, 자청전으로 가고 싶지만, 그곳들은 구만리 먼 곳에 있으며 오색운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다. 천상이 구만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은 지상이다. 화자의 좌절감과 막막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천상 백옥경 십이루'나 '자청전' 등은 옥황상제가 있는 천상을 나타내는 공간인데, 현실 차원에서는 임금이 있는 궁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차라리 스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화하여[서라도]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넋이 되어

➡ 죽어서라도 '두견의 넋'이 되고 싶다는 것은, 자신의 한스러운 마음을 알리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죽어서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억만 번이라도 하겠다는 말은 곧 억만 번이라도 죽겠다는 말이니, 화자의 소망이 그만큼 절실함을 나타낸다.

참고 ▼ 두견새는 입속이 유난히 붉은빛을 띠는데, 이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 흔히 피 울음을 토하는 한(恨)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이화(梨花, 배꽃)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 배꽃 가지 위에서 밤낮을 울 수 없거든

➡ 화자는 죽어 '두견의 넋'이 되어서 밤낮 울음으로 한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라다가,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여 다른 변신 대상을 찾으려 한다.

삼청동리(三淸洞裡)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 삼청[있는] 마을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 화자는 이제 '두견의 넋'이 아니라, 신선들이 사는 마을의 '저문 하늘 구름'이 되고자 한다.

바람에 흘리 날아 자미궁(紫微宮, 옥황상제가 산다는 궁궐)에 날아올라

→ 바람에 흘러 날아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 향로를 올려놓는 상 앞)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 옥황상제 앞에 놓인 상에 가까이 나아가 앉아

흉중(胸中, 마음속)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뢰리라

➡ '구름'이 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면 옥황상제 앞에 나아가 가슴속 비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아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야 앞에서 천상백옥경, 십이루, 자청전에 다다를 길을 헤아려 보고, '두견의 넋'이나 '삼청동리에 저문 하늘 구름'이 되고 싶다고 말한 이유가 드러난다. 무슨 이유에선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쫓겨난 것으로 짐작되는 화자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옥황상제에게 자신의 한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것이다.

어와 이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 아아, 나의 몸이 천지간에 늦게 태어났으니

➡ 자신이 '늦게 나'서, 즉 요순 같은 옛사람들의 시대에 태어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불행을 겪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황하의 물이 맑기는 하지만

➡ 황하는 평소 흙탕물이 흐르지만, 성인(聖人)이 태어날 조짐으로 천 년에 한 번씩 맑아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 '황하수'가 '맑다'고 한 이 시구는, 임금이 혼군(昏君,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내비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요순의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다는 한탄과 다소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신하 된 자로서 임금을 대놓고 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 [내가] 초나라 나그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 몸인가. 슬픔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넋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 [내가] 가 태부의 넋인가. 한숨은 무슨 일인고.

➡ '초객'은 참소로 인해 조정에서 쫓겨나 방랑했던 전국 시대 초나라의 굴원을 가리키는 말이고, '가 태부'는 참소로 인해 정치적 불운을 겪었던 한나라 태부 가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화자는 자신을 그 두 인물과 관련지음으로써, 자신이 억울하게 관직에서 쫓겨나 슬픔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형강(荊江)은 고향(故鄕)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 자기 고향이 아닌 고장에서 사는 일)하니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제시되곤 한다. 형강은 중국 강소성의 형산 근처에 있는 강인데, 이곳이 중국의 남부이므로 여기서의 '형강'은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인 작가의 고향 경상도 금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그 첫 번째이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은 고향을 떠나 십 년을 지내면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형강'이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인 작가의 유배지 전라도 순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편의상 첫 번째 해석에 따르자면, 이는 화자가 벼슬살이를 하기 전, 자연을 벗 삼아 지낸 시절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임을 만나

→ 어르듯이 사랑하듯이 [하는] 남들에게는 없는 [귀한] 임을 만나서

➡ 이 '임'은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니, 이 구절은 관직에 오른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 ▼ 작가는 성종 때에 관직에 올랐으니 이 시구에서의 '임'은 연산군이 아니라 성종이라 보는 것이 맞겠지만, 여기서는 굳이 구별하지 않도록 하자.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 '금화성'과 '백옥당'에서 지냈던 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을 다시 보는 '꿈'조차도 '향기롭다'고 느낄 만큼 좋은 시절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금화성'과 '백옥당'은 대궐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작가가 근무했던 승정원과 홍문관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한다.

오색(五色)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 [내가 가진] 오색실이 다 잇기에는 짧아서 임의 옷을 만들지는 못해도

➡ 자신의 재주가 큰 공적을 세우기에는 모자라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 가을철에 털갈이하여 새로 돋아난 짐승의 가는 털을 뜻하는 것으로,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나 갚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 임의 은혜를 추호라도 갚으리라는 백옥 같은 자신의 마음을, 임을 위해 지키고 있었다는 구절이다.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지니고, 임금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 했다는 것이다. '백옥 같은 이내 마음'이라는 말로 관직에 있던 당시에 자신이 품었던 충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 '장안 어젯밤'의 '무서리'는 연산군 때의 사화(士禍)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 저물녘에 긴 대나무에 기대어 서 있으니 푸른 소매가 얇아서 춥구나.

➡ 경박한 남편이 새 부인을 얻음으로 인해 산속에서 외로이 지내고 있는 여인의 한을 그린, 두보의 시 「가인(佳人)」의 표현을 차용한 구절이다. 화자는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를 그린 시의 구절을 차용하여, 유배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유란(幽蘭, 그윽한 곳에서 자라는 난초)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 임을 향한 애정을 나타낸 구절이다. 인적 없는 곳에 자라난 '유란'은 버려져 있지만 절개를 지키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약수(弱水, 신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 있다는 전설 속의 강. 매우 넓고, 부력이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임을 그리워하지만 임의 곁으로 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건널 수 없는 '약수'과 시야를 가로막는 '구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중략)

뜻밖의 회오리바람 벼슬길에 일어나니

➡ '벼슬길'에 일어난 '뜻밖의 회오리바람'은 화자가 겪은 정치적 시련을 의미한다. 흔히 환해풍파(宦海風波, 벼슬길에서 겪는 온갖 험한 일)라는 말로 나타내는 이것은 앞에 나온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의 '무서리'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억만 길 못에 빠져 하늘과 땅 모르겠네

➡ 그리하여 결국 유배에 처하게 된 자신이 느끼는 당혹감과 좌절감을, 억만 길 깊이의 연못에 빠져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노(魯)나라의 묽은 술에 한단(邯鄲, 조나라의 수도)이 무슨 죄며

→ 노나라의 술이 묽은 것에 대해 [조나라의 도성인] 한단이 무슨 잘못이 있으며

참고 전국 시대에 조나라와 노나라는 초나라에 술을 바쳤는데, 어느 해에 노나라가 품질이 떨어지는 묽은 술을 내놓았을 때 술을 운반하는 사자가 노나라가 바친 술과 조나라가 바친 술을 바꿔 놓아서, 초나라가 조나라의 도성인 한단을 공격했다고 한다.

진인(秦人)이 취한 잔에 월인(越人)이 무슨 탓이랴

→ 진나라 사람을 취하게 한 술잔에 월나라 사람이 무슨 관여를 했으랴.

참고 춘추 시대에 진나라는 중국의 서북쪽에 있고 월나라는 동남쪽에 있어서, 이 두 나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 화자는 아무 잘못이 없이 공격을 당한 '한단'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월인'에 빗대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성문(城門) 모진 불에 옥석(玉石)이 함께 타니

참고 '불에 옥석이 함께 타' 버린다는 것은 『서경(書經)』의 구절을 차용한 표현이다. 『서경』의 구절은 [옥의 산지로 유명한] 곤륜산에 불이 나면 옥과 돌이 구별 없이 타 버린다는 것인데, 이는 나라에 큰 화가 닥치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뜰 앞에 심은 난(蘭)이 반이나 시들었네

➡ 사화로 인해 선인과 악인이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신세를 엉뚱한 이유로 시들어 버린 '난'에 빗대고 있다.

참고 '성문 모진 불'에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었'다는 것은, 성문에 난 불을 끄느라 연못의 물을 다 퍼내서 연못의 물고기가 말라 죽었다는 고사를 차용한 표현이다. 성문에 난 '불'을 끄느라 물을 다 써서 '난'이 시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난'은 고사 속의 말라 죽은 물고기처럼 '불' 때문에 엉뚱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오동(梧桐) 저문 비에 외기러기 울어 넬 제

→ 해 저문 밤에 오동잎에 빗발이 떨어지고 외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갈 때에

➡ 청각적 심상을 통해 자신의 쓸쓸한 심사를 암시하고 있다.

관산 만 리(關山萬里) 길이 눈에 암암 밟히는 듯

➡ '관산'은 고향의 산을 의미하는 말로, 이 구절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나 그곳과 '만 리'나 떨어져 있어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